

《사람에게 가는 길》 선정기 사람 냄새가 풀풀 풍기는 공동체 순례기

“세계는 한 권의 아름다운 책에 이르기 위하여 만들어졌다.”
19세기 프랑스의 상징파 시인으로, 프랑스 근대시의 최고
봉으로 평가되는 스테판 말라르메의 말에 따르면 지금 우
리 모두는 한 권의 책, 그것도 ‘아름다운 책’을 구성하는
요소요소들인 셈이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름다운
책’을 구성하는 요소일진데, 책을 만드는 사람이나 그 책
을 읽어 마음의 양식으로 삼는 사람들은 일러 무엇하랴.
글_장동석 기자

이 달의 책 선정위원

김광일 조선일보 문화부장 · 김연수 소설가
나신하 KBS 문화복지팀 출판담당 기자 · 이이화 역사학자

《어린 왕자를 찾아서》 김화영 지음 | 문학동네 | 120쪽 | 값 7,500원
불문학자 김화영 교수의 《어린 왕자》 해설서이다. 김 교수는 최근 프랑스 갈리마르 출판사
에서 1999년 출간한 《어린왕자》를 번역했는데, 역사 후기를 위한 자료를 모으는 과정에서
작품에 대해 알게 된 흥미로운 사실을 책으로 엮었다. 작가 생텍쥐페리의 사생활, 그의 아
내가 남편을 위해 예비할 때 읽었던 기도문, 소설 스토리보다 삽화가 먼저 탄생한 사연 등
일반에 잘 알려지지 않은 창작의 뒷얘기들이 풍성하게 실려 있다.

《장한몽》 조중환 지음 | 현실문화연구 | 576쪽 | 값 13,500원
근대 문학 초창기의 변안 소설 가운데 수작을 가려 뽑은 ‘한국의 변안 소설’ 시리즈 제1권.
신소설의 한계를 넘어 근대소설로 접근해 가는 결정적인 통로를 마련한 ‘변안 소설’의 대
표작 《장한몽》을 만날 수 있다. 오늘날까지 끊임없이 패러디되는 ‘이수일’과 ‘심순애’의 연
애담이 입체적인 구성과 밀도 높은 심리 묘사, 다양한 표현 기교 등을 통해 구현된다. 근대
초창기에 ‘연애와 사랑’이라는 지극히 사적인 일상생활의 영역이 어떻게 대중을 사로잡았
는지 알 수 있게 하는 소설이다.

《여자전》 김서령 지음 | 푸른역사 | 272쪽 | 값 12,000원
한국 현대사를 운명으로 겪어낸 8명의 여인들을 인터뷰했다. 단순히 한 여인의 지난한 과
거사가 아닌 여성으로서 감내해야 했던 현대사의 질곡들이 절절하게 와 닿는다. 8명 여인
들의 면면도 남다르다. 아버지와 오빠를 찾으러 산에 올랐다가 빨치산이 됐던 고계연 할머니.
빨치산에서 세일즈우먼으로 변신해 생존을 위해 처절히 투쟁했던 나날을 들려준다. 사
상에 물들어 북으로 가버린 남편 대신 안동 명문 유일재 가문을 반세기 동안 지켜온 김후웅
할머니의 삶은 엄숙하다.

《출판저널》의 문을 두드린, 저마다 독자들에게 ‘한 권의 아름다운
책’ 이기를 소망한 책들 중 6월 이 달의 책 후보에는 모두 10권이 이름을
올렸다. 새롭게 선정위원으로 위촉된 네 분, 역사학자 이이화 선생과 조
선일보 문화부 김광일 부장, 한국방송(KBS) 출판담당 나신하 기자, 소설
가 김연수 씨는 후보도서들 중 모두 8권을 언급해 주셨다. 그만큼 6월 이
달의 책도 치열한 경합을 벌였다는 방증일 것이다. 이 중 《사람에게 가
는 길》이 고른 지지를 얻어 6월 이 달의 책으로 선정되었다.

소설가 김연수 씨는 《사람에게 가는 길》을 “사람 냄새가 풀풀 풍기는
공동체 순례기”라고 평했다. “공동체라면 이상의 공간이라고 생각하게
마련인데, 이렇게 인간적인 면모를 발견하는 책이어서 반갑다.”면서 “하
지만 그게 다가 아니다. 틱낫한의 플럼빌리지에서처럼 저자는 기적도
발견한다. 이게 제일 중요한 듯하다”는 평을 보내왔다.

KBS 나신하 기사는 “특출하지는 않지만, 어디로 가는지 모른 채 숨을
헉헉거리며 달려가는 현대인들에게 잠시 서서 뒤를 돌아보고 주변을 살
펴보며 숨을 돌릴 기회를 준다”고 평하면서도 “그러나 너무 깊게 생각
하면 자신의 삶이 우울해지기 쉽다. 문명의 편리함과 공동체 생활의 정
신적 여유를 함께 누릴 요량이라면, 그것은 과욕의 또 다른 이름일 뿐”
이라는 경계도 잊지 않았다.

한편 이이화 선생은 “현실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저술”을 기준으로
《빵은 길을 만들고 밥은 마을을 만든다》를 추천하면서 다음과 같은 평
을 보내왔다. 빵과 밥이라는 먹을거리를 통해 문명이 형성되고 이질적
역사와 문화와 기질이 형성됨을 밝히고 있다. 더욱이 우리의 식품 곤 쌀
이나 김치를 문화사적 보편성과 연관지어 풀이하고 있기도 하다. 오늘

《사람에게 가는 길》 김연수 지음 | 마음의숲 | 432쪽 | 값 12,000원
유기농업가이자 농촌공동체운동가인 김연수씨가 3년간 전세계 21개국 38개의 공동체 마
음을 탐방한 여행기. 자연 속에서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풍경이 평화롭게 펼
쳐짐과 동시에 저자 내면의 변화가 생생히 전달된다. ‘나’ 아닌 ‘우리’의 진정한 의미가 무
엇인지 깊이 있게 되새겨 볼 내용들이 담겨있다. 색다른 문화와 환경 안에서 공동체를 이루
며 살아가는 이들의 모습이 신선하다.

《세상을 깊게 보는 눈》 한국탐사언론인회 지음 | 황금부엉이 | 400쪽 | 값 12,800원
우리 시대 마지막 달동네 난곡, 한국의 치부를 고스란히 드러낸 황우석 사태. 한국의 대표
적인 문제들을, 한국을 대표하는 탐사언론인 10인이 추적해냈다. 사건 그 자체보다 그 이
면을 적극적으로 파헤치는 보도 방식인 탐사보도가 국내 언론계에 정착된 것은 불과 2년
남짓하지만 그 성과물들을 주목할 만하다. 단발성 보도와 받아쓰기 위주의 보도로 인해 점
차 신뢰를 잃어가는 한국 언론이 사회의 비리나 구조적 문제에 접근하는 새로운 시도라는
점에서 탐사보도, 그리고 이 책은 주목받을 만한 가치가 충분하다.



날 한국관련 연구자들은 생활사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 내용들은 그 일환으로 활용될 수 있다.”

김광일 부장은 《즐거움의 가치사전》을 첫 손가락에 꼽으면서 “인류가 추구해온 쾌락에서 죄의식의 굴레를 벗겨낸 책이다. 그렇다고 찬양까지는 아니지만, 쾌락의 정체를 객관적으로 들여다보려고 오랜 공을 들였다”는 춘철살인의 평을 덧붙였다.

소수 의견 그러나 빛나는 책들

네 분의 선정위원들이 추천해 준, 비록 소수 의견이지만 다음 책들도 눈여겨 볼만하다. 소설가 김연수 씨는 《여자전》을 일러 “한국 현대사를 온몸으로 뚫고 온 여성들의 구술사”라고 평했다. “빨치산 출신인 고계연, 안동 종가집의 중부 김후웅, 팔로군 출신 기공연구가 윤금선 등 개인의 삶을 통해 역사를 읽을 수 있는 할머니들의 이야기도 흥미롭지만, 명성황후에 사로잡힌 이영숙 같은 이의 삶도 흥미롭다”면서 “이 책을 계기로 출판계에서 개인들의 현대사에 대한 관심이 좀더 활발해졌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곁들였다.

김광일 부장은 《유토피아 이야기》를 추천하면서 “이상사회를 소개했던 9권의 고전을 새로 해석해낸 책이다. 과학 칼럼니스트이자 저술가인 저자는 항상 현재적인 문장으로 독자를 즐겁게 한다는 강점을 지니고 있다. 풍요의 땅인 유토피아는 우리가 도달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꿈꿀 수 있느냐가 훨씬 중요하다는 것을 말해준다”고 강조했다.

나신하 기자는 《문화정치학의 영토들》을 가리켜 “소비와 미디어, 섹슈얼리티 등 우리 사회 문화 현상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고민해 본

사람, 계몽주의이니 휴머니즘이니 하는 서구적 가치관의 한국적 수용에 불만을 가져 본 사람들에게 이 책은 자그마한 위로를 줄 수 있을 것”이라면서 “혜계모니 이론과 문화연구 등 서구에서 비롯된 문화 접근 방법이 곳곳에서 눈에 띄지만, 문화 현상에 대한 안목을 길러주기에는 꽤 괜찮은 입문서라고 본다. 단, 개별 문화 영역별로 글의 난이도가 다른 점을 참고하시길”이라고 덧붙였다.

이이화 선생은 《세상을 깊게 보는 눈》을 “오늘날 한국사회는 정보사회가 갖고 있는 다양한 문화가 형성되는 단계여서 사회가 꼬이고 휘어 있다. 여러 언론매체도 혼돈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진실 탐구의 한계, 전문성의 부족 따위가 지적된다”고 비평한다. 아울러 “이에 대한 반성으로 심층취재, 전문적 탐색을 통한 ‘탐사 보도’가 제기되어 관심을 끌고 있다. 여기 내용에는 소외계층 여성 인권문제 등을 다루고 있다. 따라서 이 책은 심층보도 사례집, 탐사의 안내서이다. 언론의 폐단과 침해를 제어하는 한 방법의 모색”이라고 평했다.

영혼이 담긴 유일한 상품, 책

판타지의 고전 《반지의 제왕》을 쓴 톨킨은 이 작품을 “내 생명의 피로 쓴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영혼이 담긴 작품이라는 말일 것이다. 그렇다. 책은 상품은 상품이되, 영혼을 담은 상품인 것이다. 저자의 영혼이, 편집자의 혼이 담긴, 책으로 세상과 소통하고자 하는 모든 이들의 ‘영혼’이 담긴 유일한 상품이다. 6월, 영혼이 담긴 작품으로 독자들의 결을 찾아가는 양서들이, 독자들의 마음속 빛나는 ‘영혼’으로 자리 잡기를 간절히 마음으로 기대해본다. **김민**

《즐거움의 가치사전》 박민영 지음 | 청년사 | 388쪽 | 값 19,800원

사람에게 즐거움을 제공하는 ‘쾌락의 모든 것’을 담고 있다. 현대인에게 즐거움을 제공하는 41가지 욕망들을 제시하고 있다. 풍부한 문학작품과 역사적 사실을 근거로 촘촘히 엮어나간 행간들은 쾌락이 충동하는 사회에 대처하는 원동력이라는 점을 발견하게 한다. 아울러 저자는 무절제한 쾌락추구로 생기는 병폐를 줄이는 방법을 독자들과 고민하고 있다. 저자의 해박한 독서경험은 독자들에게 책을 읽는 즐거움을 제공한다.

《문화정치학의 영토들》 이진경 편저 | 그린비 | 592쪽 | 값 23,000원

‘포스트모던의 조건, 현대 자본주의와 현대 문화, 근대성의 문화적 요소들, 근대의 욕망과 신체, 근대의 이념적 경계’ 등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의 ‘문화’를 이해하는 데 있어 핵심이 되는 주제들을 살펴본다. 문화복제와 생명복제, 정보통신혁명, 공간과 시간, 시선, 기억, 일굴, 내밀성과 프라이버스, 섹슈얼리티와 퀴어정치, 페미니즘, 휴머니즘, 계몽주의와 근대성, 식민주의와 탈식민주의 등을 자신들만의 신선한 감각과 날카로운 분석력을 토대로 깊이 들여다본다.

《빵은 길을 만들고 밥은 마을을 만든다》 권삼윤 지음 | 이가서 | 304쪽 | 값 15,900원

“현장의 지혜를 존중한다”는 저자, 권삼윤 씨가 20년 넘게 60여 개국을 여행한 기록을 담았다. 저자는 이 책을 “나의 세계비교문화론”이라고 명명한다. 이 책은 문명비평가이자 역사여행가인 저자의 깊은 사유를 통해 현장감 넘치는 사진자료와 함께 동서양 문명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빵과 밥의 차이가 동서양의 의식주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예술과 가치관의 변화를 논리적으로 풀어내고 있다.

《몸의 역사 몸의 문화》 강신익 지음 | 휴머니스트 | 352쪽 | 값 20,000원

동과 서, 전통과 현대의 눈으로 인간과 몸에 대한 역사, 문화, 사상을 집대성한 책이다. ‘기체로서의 몸’을 다루는 과학의 차원을 넘어 ‘삶으로서의 몸’을 생각하는 인문학을 ‘몸’의 차원을 넓히고 있음을 주목할 만하다. 또한 과학과 인문학 사이에 존재하는 ‘의학’에 대한 집요한 탐구도 돋보인다.

《유토피아 이야기》 이인식 지음 | 갤리온 | 516쪽 | 값 25,000원

플라톤의 《국가》에서부터 조지 오웰의 (1984년)까지, 세상이 두려워한 ‘위험한 생각’의 역사를 추적하는 책이다. 플라톤, 토머스 모어, 프랜시스 베이컨 등 9명의 작가들의 작품을 통해, 당대 최고의 사상가들과 문필가들이 어떤 미래를 기획했는지 또 현실의 문제를 어떻게 인식하고 근본적 해결책을 찾았는지, 그리고 당대의 문제들이 ‘지금 여기’의 문제와 어떻게 잇닿아 있는지 조목조목 정리하고 있다.

